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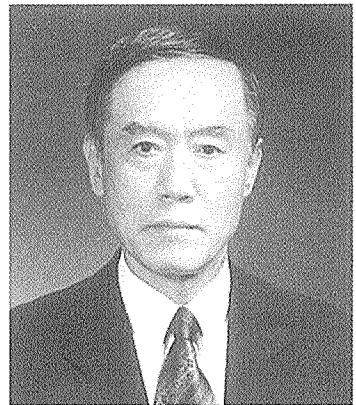
送 年 辭

尊敬하는 會員 여러분!

壬午年 歲暮에 즈음하여 올 한해를 되돌아보면 한편으로는
悔恨도 있었지만 또한 보람찬 일도 많았으리라 믿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우리나라는 월드컵경기 및 아시안경기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였고 또 제16대 大統領도 새로 뽑았습니다.

또 우리협회로서도 크게는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이
制定됨으로써 放射線利用技術産業의 育成·發展을 위한 法的인
발판이 마련되었으며 작게는 지난 11월29일 우리협회가 中·日 등
우리나라 隣接國의 RI관계 主要人士들을 招聘, 業界 初有의 國際
회의 및 國際行事的 遂行能力向上과 함께 앞으로 21세기 東北亞
지역에서 RI분야의 先導的 役割을 擔當할 수 있다는 可能性을 다지는 등 國家的으로나 우리협회로서나
바쁜 한해였고 많은 變化를 가져온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협회는 회원여러분께 有益한 情報과 서비스제공, 회원간 親睦圖謀 및 權益增大 등의
여러 측면에서 볼 때 나름대로 努力한다고 하였으나 아직도 未洽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더욱 奮發하여 회원님들의 不便을 덜어드리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동안 우리 RI利用業界의 育成과 發展을 위해 많은 聲援을 보내주신 會員任들께
다시 한번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가는 해를 아쉬움으로 보내면서 곧 이어질 새 政府出帆에 때맞추어 우리 모두 보다 새롭고
알찬 設計로 希望찬 새해를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회원여러분! 올 한 해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 12. 31.

壬午年 한해를 보내면서.....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會長 韓 榮 成